

# 긴 안목의 청소년독서교육

유재천

서강대학교수 · 신문방송학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사를 위한 행사' 처럼 되어버린 올해 '청소년의 달'도 지나갔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금년 5월에도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그들의 독서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들이 무성했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의 달'도 지나갔으니 그런 논의나 노력도 내년 5월까지의 침묵이나 동면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청소년들의 문화매체수용에 대한 관심은 이제 책에서 비디오로 옮겨간 느낌이다. 좋은 책을 권장하고 불량도서를 추방하지는 캠페인보다 건전 비디오 보기를 권하고 폭력이나 섹스가 난무하는 성인용 비디오 안보기운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상매체가 지배하는 시대인 만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책보다 더 즉각적이라는 면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가운데 청소년들과 사회의 책에 대한 관심이 엷어져 가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 된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 우리 출판의 장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인간형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겠다.

즉 청소년시절부터 책과 친하지 못하고 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책을 가까이 하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출판의 장래는 비관적이 된다. 그러나 출판산업의 장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 인간형의 주조와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책을 멀리하고 영상매체를 주로 접촉하며 자란 세대는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형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로 충만한 미래의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면 사람다움은 찾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긴 눈으로 볼 때 '책 읽기'는 다만 학습이나 교양 또는 건전한 자아형성이라는 도식적 가치로서만 권장될 성질의 것 이상이라는 인식에 귀결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기성세대가 해야 할 과업은 자명해진다. 청소년들에게 책 읽는 습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 일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좋은 책 읽기를 권장하고 독후감을 쓰도록 하여 열권의 책을 읽고 쓰는 과제를 내주는 등의 교과과정 운용이 필요하다. 학교 도서관의 장서를 풍부하게 마련하는 노력도 물론 뒤따라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상급학교 입학시험의 출제경향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이지만 입시공부에만 모든 평계를 달 일은 아닐 것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금년 4월말부터 5월초에 걸쳐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독서경향 및 독서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대부분인 74%가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다. 학생들은 독서교육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독서교육담당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문교부는 중고등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그런 계획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독서교육을 정권 유지수단의 일환이나 혹은 이데올로기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했던 탓일 것이다. 이제는 제발 그 깊은 근시안적 편법으로 교육을 보지말자. 구호로만 외쳐대는 민족의 장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뉴스	2	한국전자출판협회 창립총회 · 외
표지인물	4	전통적 주거생활의 참모습 한데 집대성 「한국의 민가」 펴낸 김홍식교수
에세이	6	“소년 책벌레가 이제 어엿한 발행인” — 오성찬 ‘물’ 대신 ‘문학’을 그리워한 섬소년의 책읽기
서평	8	크리스천아카데미 「대화의 철학」 — 손동현 주성수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 신광영 9 진석용 「칼 마르크스의 사상」 — 이우관 10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 박은정 전재경 외 「관습법조사연구」 — 최중고 11 하일브른 「막스 플랑크」 — 임경순 12 최두석 「리얼리즘의 시정신」 — 윤여탁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 김 영
화제의 책	13	조선조 중간계층의 문학예술 집대성 「이조후기여형문학총서」 전10권
출판화제	14	해외문학수용 새 지평 연 스페인어권 문학 독특한 작품세계 소장학자들 원전번역으로 소개
신간화제	15	역유평이시대의 책의 불행한 미래 「20세기 미술운동총서」
이 책 그 사람	16	「아름다운 산」 펴낸 김홍주씨 「용의 전설」 펴낸 이만희씨 17 「이야기, 떨어지는 가면」 낸 함정임씨 「한국사회주의연국운동사」 낸 이강렬씨
현장취재	18	자기 목소리 내기 시작한 호주출판계 — 고정기 영어권 도서시장에서 영어권 출판국으로 화려한 변신
화제의 인물	21	“한국문학 세계로 알리는데 교두보 되겠다” 佛 악트쉬드 출판사 편집장 베르트랑 피씨
해외신간	22	나라 밖서 주목끄는 해외 최신간 2 — 이봉호
세계의 책	24	미국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 · 외 — 배병삼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